

나주 금천 교차로 “부실 원인은 설계 잘못”

연 약지반 검토 없이 표증만 덧씌워… 전면 개보수 해야 할 판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62억 원을 들여 완공한 교차로가 지반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가 이뤄져 보수공사비로 수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게 돼 맘병을 빚고 있다.

6일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본보 3일자 ‘나주시 금천면 촌곡 2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최근 구멍이 뚫린 일부 도로노면을 임시로 덧씌우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쿤이 흘러내려 노면의 누더기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실공사는 해당구간의 지반이 악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돼 노면 침하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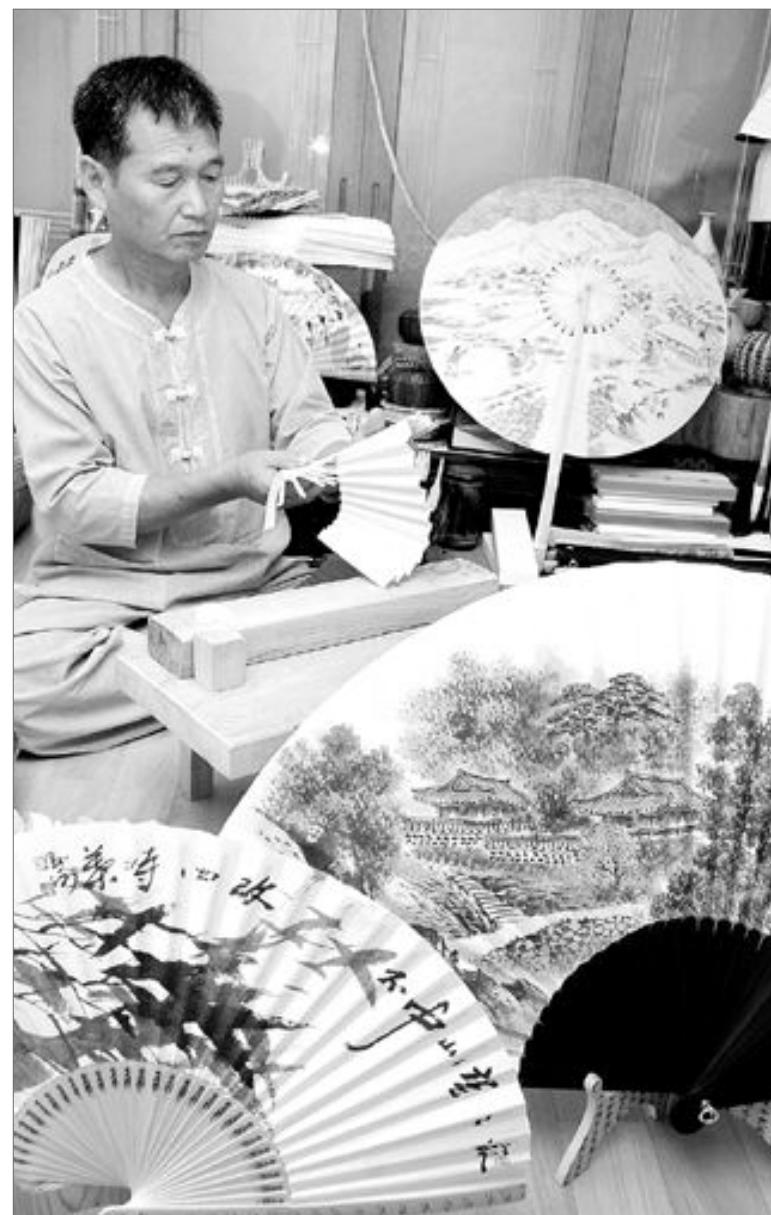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공사가 완공된 지 3개월 후 곧바로 시공사인 G건설이 하자보수를 마쳤는데 또 다시 노면의 구멍이 뚫리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해당구간의 경우 설계 당시 연약지반에 대한 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표증만 5cm를 덧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을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공된 표증을 걷어내고 기증까지 보수하는 등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응급 보수만 실시한 상태”라며 “전면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로 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월출산 氣 충전하세요”

영암 ‘기찬랜드’ 11일 개장

영암군은 월출산 자락에 있는 ‘기(氣)찬랜드’를 오는 11일 개장해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다.

기찬랜드는 월출산 맥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수를 이용한 5개의 자연형 폴과 월출산 기(氣)를 체험할 수 있는 ‘웰빙 氣 도보’, 삼림욕장, 기간강센터 등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최고 휴양지로, 지난해 여름에 35만 명이 다녀갔다.

군은 월출산의 물, 숲, 바위 등을 체험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도로인 웰빙 기도로 5.5km(탑동 소공원~용추폭포)를 개통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을 여름 손님맞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웰빙 한천 자두 ‘인기’

화순군, 230상자 출하

화순군 한천 자두가 뜻 출하돼 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전면 자두영농조합법인에서 자두 10kg들이 230상자를 광주 각화동 농산물 공장에 출하했다.

전

완

준

관

계

자

수

들

을

비

트

이

다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

을

보

내

라

고

기

자

수

들